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0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00:1-5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8장(새 28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32번(스크린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보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십자가를 통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눌려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당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해지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갈라디아서 6:12-17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우리 인생에 남겨야 할 흔적

- 봉 헌(offering) 360장(새 324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505장(새 452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클리브랜드 한인회 주관 8·15 광복절 행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후 행사장소로 이동해서 행사참여와 친교를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8월 13일(일) 오후12:30
 - 장소 : Brecksville Metro Park Meadow Area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13:1-7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자아에 관련되어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간 적용하고 함께 나누시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갈라디아서 6:11-18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 유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12-13절)
2.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며 그가 율법의 의식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14-16절)

❖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극히 본성적인 욕구를 채워 만족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좀 더 나아가 인생의 의미를 단순한 본능적 삶의 영위를 넘어 가치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로 인해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성적인 욕구도 채우고 좀 더 인간다운 면모도 갖춰보고 싶은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육체적 욕망이 가면을 쓰고 영적인 소망이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 가운데 버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과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만날 때 받는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 상식밖에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정욕과 탐심이라는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신앙의 힘을 빌어 채워보려는 타락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의 신앙생활의 흔적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